

< 섭리사 전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말씀 >

2009.8.18새벽 03:29 예수님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써지기 시작함.

사랑하는 자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 너희를 구원코자 나의 모든 전부를 걸어 너희의 인생들을 나의 핏 값으로 샀느니라. 너희는 모를 것이다.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도 괴로웠는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고 사는구나. 나 예수가 이 어린 자를 통해 이곳 섭리사에 대해 말씀 할 것이다. 더욱 깨어나고 긴장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 있는 이곳 섭리사, 너의 선생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한 이곳 섭리사는 나의 희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너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의 큰 기쁨이고 원한 맺힌 내 심정을 풀어줘야 할 자들인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내 심정을 듣고 나의 심정을 받고 나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나의 섭리사가 되길 원하노라. 30년 전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나는 너의 선생을 키워왔고 길러왔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왔다. 무엇이든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듯 이 섭리사는 나 예수와 너희 선생의 합작품이다. 천지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하나를 뽑아주셨고 성령은 감동으로 인도하셨고 나 예수도 동참하였으며 너희 선생 또한 함께 하였느니라. 너희들 처음에 이곳에 올 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너희 선생은 나의 가르침대로 너희를 부지런히도 키워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버리기가 쉬울 것 같으나.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의 삶 속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즐기는 것 등등등 다 버리면서 할 수 있는 자 별로 없다. 하지만 너희 선생은 나만을 희망으로 여기며 끝까지 참아주고 견디어 내고 있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말이다. 그리도 나의 심정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해내면서 나의 심정 상하지 않도록 자신은 더욱 몸부림치는구나. 하늘 심정 살펴야지, 너희들 살펴야지,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한 사람이다. 나와 내 아버지께서 기대를 걸고 심정 애태우고 늘 함께 해주길 원하니 나와 내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한다. 먹을 것이 없으며 잘 수도 없었으며 입을 것도 없이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던 너희 선생 계순이는 진정으로 나에게 합당한 자다. 눈보라 휘날리며 갇은 환난, 악평의 모진 바람 겪어가며 너희 선생과의 의리를 지켜 온 너희들 또한 대견하고 기특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내 심정에 맞게 일어나 주면 안 되겠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까지 더욱 악착같이 혼연히 깨어 일어나 나 예수와 너희 선생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위로하며 깨어 일어날 순 없겠니? 우리의 눈물 닦아줄 순 없겠니? 나는 자비와 사랑의 예수니라. 나를 위해 살아다오. 이 지구촌 이곳만큼 정성을 쏟은 곳도 없느니라. 다양한 자들을 통하여 천국도 지옥도 곳곳의 세계와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가장 큰 무기고 든든한 지원군이 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여 주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니 이곳 섭리사에 온 자들과 앞으로 올 자들에게 이 심정 전하여 주리라. 내가 일 할 자를 이곳저곳 다니며 살펴보지만 섭리사에도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가 얼마 되지 않아 답답하구나. 안타깝구나. 지금 현재 너희가 하고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면 좋겠구나. 노력이란 하는 것이다. 노력이란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조금 더 나의 하늘아버지와 나의 심정과 너희 선생 마음에 맞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지 않겠니? 그리하여야 내가 더욱 이 역사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일으켜 세워줄거야. 아직 조건이 많이 부족하구나. 교회마다 개인마다 나름의 조건을 세우지만 조금만 더 애써다오. 정성이 더욱 필요하다. 석가를 믿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너희는 구원이 없는 그들보다 더 큰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사람이 참으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의 정성과 마음을 느끼고 나면 정성 없는 세상 어떤 맛있는 요리보다 더욱 기쁘고 맛있게 먹어주고 칭찬까지 해 주고 싶은 법이거늘 또한 대접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너희가 모든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쏟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달려가리라. 지금도 나는 발이 부르트고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너희에게 찾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합당한 자가, 정성을 쏟아 붓는 자가 너무나 적구나. 너무나 적어. 제발 부탁이니 줄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의 어깨를 두드리고 너의 머리에 안수하길 원하지만 너희는 잠자고 있구나. 나의 희망 섭리사인데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나의 아버지의 눈에서 나의 어머니의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며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니라. 너희는 나의 사랑에 왜 모른척 하려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픈 것보다 너희가 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니 아프고 너희가 나의 심정을 모르니 나의 마음이 아프구나. 수 없이 많은 날들 아픔으로 고통 받던 그 세월들. 너희 선생과 나의 섭리사 통해 위로 받길 원하노라. 내가 오길 목 놓아 기다리던 자들도 이제는 갑자기 너무나 무더져 세상에 빠져 지내는구나. 물질과 이성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나 예수는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그런 곳에 어찌 희망

을 걸겠느냐. 나의 희망은 이곳 섬리사밖에 없구나.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코자 하는 구원주 예수니 어서 속히 깨어나라. 일어나고 깨어 일어나 근신하여라. 나를 의식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나를 사랑해 주어라. 나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라. 부모의 한, 끝없는 사랑을 너희는 느껴보았지. 그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고 감사하면 부모는 이 세상을 전부 얻은 것과 같은 마음을 느낀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관리하면서 부모의 그 심정 느꼈을 것이니 나에게 어서 속히 그 마음 보여 다오. 내가 너무나 너희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노라. 나와 같이 가자. 내 아버지 나라에 함께 가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 좀 쳐다봐 다오. 나 좀 위로해 다오. 나 좀 생각해 다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정, 성령어미의 눈물, 나와함께 너희 선생 또한 위로해 다오. 섬리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이루어 다오. 나의 하늘 아버지의 6천년간의 눈물과 아픈 마음을 아느냐. 이 섬리사 사랑하는 신부로 택해 뽑은 섬리사. 6천년 역사의 핵심이고, 액기스이다. 그러니 분발하여라. 분발하지 않으면 너희 또한 장담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모두 받았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고 우리의 아픈 심정을 위로해 줘야 한다.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을 때까지 연장해 주며 잘 해 주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섬리사. 절대 나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라. 실망을 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애원하며 간곡히 부탁하지만 이제 곧 나 또한 너희 곁을 떠나야 할 때가 곧 오나니 너희 선생을 또한 또 어린 자들을 통해 말씀하는 나의 심정을 더욱 받고 몸부림, 마음 부림, 영 부림 쳐다오. 몸부림을 쳐다오. 그것만이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라.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 선생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다오. 제발 간곡히 부탁하고 원하노라. 나의 자랑거리 내 아버지의 기쁜 곳, 자연성전 더욱 사랑하여라. 내 몸과 같이 여겨다오. 더욱 하늘아버지를 나를 가깝게 만날만한 합당한 곳이니 더욱 부르짖기에 힘써라. 수련회 통해 많은 자들이 다녀가지만 너희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니 수 없이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라. 그래야 나에게 더욱 합당하리라. 나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는 자니라. 생명을 내 몸같이 여겨다오. 너희 형제를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대해다오.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으니 너희들은 모두 내 몸이니 내 몸이라 여기며 사랑하고 아껴다오. 그리하여야 합당하니라. 세상의 어두운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 살려주길 원하노라. 나의 재림을 울며불며 기다리는 자가 각 곳에 많이 있으니 깨어나 나의 눈이 되고 심정이 되어 찾아다오. 죽어가는 내 생명 살려줄 때 나는 누구보다 기뻐하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 위로할 때 나는 진정으로 기쁘구나. 위로해 다오. 너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용서받길 원해 병아리 눈물이라도 흘리고자 하는 너희가 나에게 합당하구나. 나를 진정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합당하구나. 나의 재림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외쳐주는 너희의 모습이 합당하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와 의논하며 함께 하자꾸나. 너희 선생 내가 사랑하는 계순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 선생 또한 지금 그러하니 너희가 우리의 몸이 되어다오. 너희 선생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고 있구나. 정말 그러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아야 알겠느냐. 너희가 듣는 이 말씀에 핏자국이 보이지 않느냐. 심정의 핏자국,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어서 깨어나서 함께해다오. 너희 선생을 위해서도 선생의 어미를 위해서도 꼭꼭 기도하거라. 그것이 예의이다. 이 귀한 말씀 깨달아 구원의 길에 오르게 해준 나의 몸 된 사명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구할 것만 구하는 기도는 이제는 멈추고 나에게 합당한 기도를 해다오. 그리해야 더욱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합당한 것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말로 듣지 말아라. 모르거든 묻고 행하여라. 의심만 하지 말고 오래된 자들, 너희의 곧아있는 목을 풀고 나의 발아래 엎드려라. 나의 아버지의 진노의 칼이 너희의 순수했던 첫사랑, 첫 마음, 첫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려치게 될 것이다. 오래된 자들은 너희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발아래 모두 엎드려라. 그리해야 한다. 곧 두렵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오래된 자들은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어린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내 마음을, 너희 선생의 마음을 받아 함께 해다오. 너희가 함께 함으로 내가 지난 날 너희 선생과 함께 너무 큰 힘이 되고 든든하였거늘 지난날의 삶이 오히려 너희의 발목을 잡는구나. 잘못되었다 한 것은 모두 변화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하노라. 내 말을 꼭 명심하고 순종하며 실천하여 다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담겨져 있는 그릇을 비워내라. 내가 새롭게 더 좋은 것을 물 붓듯 부어 주리라. 나의 사랑을 깨닫느냐.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니라.

• 2009.8.20.새벽 4시 40분 경에 받은 말씀 <주온빛 목사>

< SS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

나의 빛나는 이쁜이들. 중고등부들아! 나 너희의 영원한 사랑 예수니라. 너희에게 편지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너희는 나의 빛나는 스타들이다. 빛나는 스타는 신앙이 최고로 좋은 자인데 나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이 온전한 스타들이다.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너희들이 너무나 대견한 나 예수니라. 내 말을 믿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나 예수인 것을 믿느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빛나는 스타들에게 많은 얘기 해주고 싶구나. 나는 순수하고 깨끗한 너희들이 참 좋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아픈 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살겠다는 자들이 너무나 나에게 합당하고 기쁘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시다. 어린 10대 때부터 마치 저희들이 어른인 양 세상의 것에 빠지고 순수함을 잃은 채 하늘아버지를 찾지 않고 이성에 빠져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빛나는 스타들이 나와 함께 너희 선생 계순이와 함께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SS는 잘 대해주면 된다. 세상에 놀곳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다는 것 다 알지만 확실히 붙잡아 줄 비법이 필요하거든 내가 너희 선생과 의논하며 코치해 줄 것이다. SS들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 나가기도 한다. 특성이다. 뭐든지 특성을 알고 대해야 한다. SS들 특성에 맞게 대해줘야 한다. SS들 기본신앙이 튼튼한 자들이 많다.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SS들이 스스로 친구들 전도해야 한다. SS는 기본인원이 되니까 1인1명만 해도 금방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인원에서 배가 배가 계속 배가의 역사를 이뤄내야 한다. 배가의 역사는 이루기 쉽다. 친구1명을 데리고 와서 좋으면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SS의 특성이니 교사들을 많이 배치하며 조직적으로 해줘야 한다. 깨어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교사는 어미와 같은 성품과 아버지의 성품으로 품어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 요즘 10대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 결손가정이 많은 추세니 어미가 없는 자는 어미의 성품으로 대해줘야 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대해주며 신앙을 무섭게 넣어줘야 한다. 거기에 신앙의 재미나 즐거움도 간간히 넣어주어라. 영광 돌리는 예술제도 많이 하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다고 하면서 올 것이다. 너희 선생도 생각해 보아라. 0대 때, 10대 때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 역사 함께 해 온 것이다. 10대 때 신앙만 잘 잡아줘도 지도자로 금방금방 쓸 수 있게 되니 대학부도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10대를 잡아라. 너희 선생 계순이는 10대 때 순수함 잃지 않고 항상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영광 돌리며 너희에게 하늘 향한 사랑만 보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온전한 것이니라. 10대 때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하기 마련이니 의식하지 말고 나 예수의 손을 잡고 해 나가 보자. 나는 너희들 곁에 항상 거하는 예수니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생각하며 어려울 때 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이야기해라. SS들도 깨끗이 회개해야 한다. 시간 날 때 마다 나를 찾고 부르짖으며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성문제 있는 자 많구나. 모두 깨끗이 하여라. 지금 미끄러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회개치 않은 자 어서 속히 회개 하여라. 너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한다. 뭘 하든지 하늘 심정 받은 자를 세우고 그 심정을 생활가운데 전해주며 땀 학교 대표도 뽑아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하나 돼 서로 의논하고 전도 방법도 찾아 보거라. 사망으로 가는 자들 불쌍해서 어찌하나? 우리 같이 살려주자. 너희 대단한 일 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일. 나의 빛나는 스타들. 너무나 멋있구나. 아름답고 기특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빛나는 스타들. 잘하는 자들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희 보고 기쁘다. 더욱 성령의 불 받도록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전국성령운동 꼭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너희의 인생이 잘 되고 행통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드릴 것을 해드려야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선생과 나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대화하고 의논하며 함께 더욱 멋진 삶으로 변화되어 보자. 전국의 세계의 SS들 한계에 부딪힌 부분을 나의 아버지를 찾고 온전히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영광 돌림으로 뚫어 보자. 세상에 안될 일은 없다. 조금만 더 하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섭리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 예수가 너희 선생과 성령 어머니께서 물 붓듯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지막 역사이기에 모든 것을 불태워 반드시 이뤄낼 것이니 너희 모두 깨어나 모두 동참하여 기쁘게 뛰어 보자. 어린나로부터 하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바치고 가겠다는 자들 내가 너희를 기억 할 것이다. 하지만 변함이 없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너희 마음이 나에게 합당치 않으니 무조건 일편단심으로 나의 안에 거하길 원하는 나는 너희의 진정한 스승 예수니라. 중양은 재림교육도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야 나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선생이 너희 걱정 많이 하고 기도 엄청 하고 많이 하고 있다. 너희도 가여운 선생 기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영광 돌려라. 아픈

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니라. 10대 때 아담, 하와로 모든 역사가 깨지고 사랑을 뺏겨 우리 사랑하는 SS 너희 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겁먹지 말고 나 예수의 재림도 준비하고 준비하여라. 나의 빛나는 이쁜이들. 너희는 오직 순종하고 순결하라. 싱싱하고 생생하게 자라다오. 안녕.

<교역자에게 주시는 예수님 편지(목회자 말씀중)>

나의 스타 SS들을 대할 땐 어리지만 하늘 앞에 하는 모습을 보고 키울 자를 빨리 키워 지도자로 세워주고 강의나 말씀을 전해줄때는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조금은 높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게 깨닫고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지금은 가장 급히 나의 재림에 대해 깨워주고 전도도 그물전도를 해야 한다. 기성에서 온 자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어야 한다. 이방은 사후세계에 대해 잘 믿지 않으니 전에 말해줬던 필독서들 읽게 하면서 관을 하나하나 깨워야 한다. 교사들과도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교역자와도 SS는 가깝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 SS들은 교역자와 세대차이가 있다 보니 교사들의 수준으로만 교육이 되는 게 하나의 문제다. 잘 함께 어우러져서 코치해주고 같이 해나가야 한다.

· 대학부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0.새벽 3시 25분경에 받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대학부야! 나의 사랑 캠퍼스야!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 놀랐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할 줄 몰랐지? 이 아이, 심정이 통해 얘기해 주고 싶어 편지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싶었다. 젊은 혈기와 열정을 가지고 패기있게 뛰고 달리는 너희들이 너무나 대견하구나! 기특해. 세상의 학문의 꿈을 두고 세상의 성공의 꿈을 두며 그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라 여기며 살았던 너희들이 목놓아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내 앞에 무릎 꿇는 너희들이 나는 참으로 좋구나.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지? 나의 섭리사 대학부들. 뛰어난 자들도 많고 멋진 자들도 많은 데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동안 나와 함께 이 역사 시작해왔지. 대학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각별하다. 이 섭리사 너의 선생 계순이가 캠퍼스를 전도하면서 시작된거 알고 있니? 그로 인해 이 섭리사가 이렇게 커오고 발전해온 것이다. 앞서 너희 선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시대 말씀 들으며 기쁨의 춤을 추며 지금까지 왔구나.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기쁠때도, 슬플때도 나와 함께 하였구나. 섭리사 갖은 환란,악평 다 터져도 지금까지 캠퍼스때 만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함께 해온 너희들이 나는 너무나 좋구나. 나의 마음 알았니? 당부의 말씀 전하고자 한다. 이 말씀 듣고 그리 해줄 것이냐? 반드시 그리 해줘야 내 속이 풀어지고 내 한이 풀어지겠구나. 캠퍼스는 참으로 유혹이 많다. 세상에 빠져 살아야 할 시간도 많고 이성을 만나기도 너무나 쉬운 곳이다. 악평을 받기도 쉽고 보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 곳이 캠퍼스다. 젊은 혈기가 넘치니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탄이 주는 꼬임에도 쉽게 빠지고 달콤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곳이 캠퍼스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다 빼앗아 와야 한다. 빼앗아 와야지 나에게 온전히 돌이키게 된다. 시간이 너무나 귀함을 아는 자들의 시간을 빼앗아 오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자신의 성공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가는 자들을 완벽한 성공에 거하게 하라. 나를 만나고 하늘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완벽한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대학부는 부지런히 성공에 관련해 아이들을 붙잡아 와라. 이제는 나 예수를 드러내며 아이들을 붙잡아 와라. 대중적인 분위기로 캠퍼스를 일으켜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직접 손대줄 것이다. 내가 직접 손대 잘 될수밖에 없게 축복해 줄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대학부 인원들이 완전 대동단결해야 한다. 기존의 캠퍼스가 불을 확 받아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중앙은 기존 회원의 불을 계속 지피고 다녀야 한다. 그 불을 일으켜 각 캠퍼스에 불을 지피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니 서로 대화하며 이루어 나가자. 대학부들이 살아야 청년부도 가정국도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질 것이며 기성을 잡아 이끌어 올 수 있다. 젊은이들이 살아난다면 이 기성에게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기성의 불을 일으켜야 하는 데 너의 대학부가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선생과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지금부터 빨리 불을 붙이고 일으켜야 한다. 불을 지필 수 있는 기존 캠퍼스의 부흥 강사도 찾아내고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 자체 안에서 하나가 완벽히 되지 못하고 그냥그냥 가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떼지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캠퍼스여! 사랑하는 나의 이 섭리사 캠퍼스여! 일어나라. 내가 빛을 주리니 그 빛을 받아 나에게 나아오라. 한 명, 두 명, 열 명 해서는 안된다. 100명, 200명씩 불같이 일으켜야 한다. 올 하반기는 자체 캠퍼스 내에 불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 불로 각 캠퍼스에 불을 일으켜야 한다. 그동안 지난날 무너진 조건도 너무나 많고 나의 심정에 합당치 않은 날도 많았다. 캠퍼스라 하지만 SS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았고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기 힘든 자도 많았다. 어떻게 뛰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도 많고 세상에 잡힌 자를 옳은 길로 이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 좌절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욱 너의 손을 잡고 이끌어 줄테니 너의 선생 계순이와 의논하면서 불같이 일으켜봐라. 너의 캠퍼스들이 하나하나 다 일어나야 한다. 너희가 일어나야 이 섭리사가 더 싱싱해진다. 더 건강해진다. SS를 통해 올라오는 캠퍼스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방황하니 그런자들도 잘 세워주고 잘 가르쳐 지도자로 바로바로 세워라. 신앙의 영적인 기준자들로 세우고 캠퍼스에서 순수하게 진도된 자들중 뽑아서도 기준자로 세워야 영과 육이 조화롭게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나 실제적으로 인원이 늘지 않아 힘이 빠진 지도자들이 많지만 조금만 더 마지막때까지 최선을 다해다오. 젊은이들을 잡아야 하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한다. 계속 불을 지피는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쉽게 타오르면 쉽게 꺼지는 법이니 슬이슬쩍 빠져나가는 생명 없나 잘 살피고 SS에서 올라온 자들 캠퍼스에서 잘 적응하도록 처음에 관리해주는 시스템도 상의하며 만들면 좋겠구나. 그때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다. 어린 아이처럼 교사들이 일일이 해주다가 캠퍼스에 올라오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니 그때 많이 어려워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구나. 놓치면 안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캠퍼스 올라오면 “거의 그렇다”라는 식의 사고는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우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여라. 대학부 자체적으로 회개도, 기도도, 말씀도 너무나 약하다. 심정도 SS보다 약한 부분 너무나 많다. 세상과 반씩 걸친 자도 많다. 지난 날 깨어졌던 무수한 조건들 다시 세워야 한다. 다시 세워야 한다. 중앙부터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 진행해 나가라. 죄가 있으면 결단코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자들이니 회개의 역사 계속 진행하면서 불을 지피 나가라. 아직도 하나되지 못한 자들 너무나 많고 진정으로 회개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 얼마 되지 않는다. 캠퍼스에도 깨어있는 자 있는 데 너희는 외모만 보지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니라. 나의 심정을 알고 위로하며 심정알고 뛰는 자가 필요하거늘 너희들은 왜 아직도 결만 보며 내 앞에 나아오려 하느냐? 진실된 자를 찾는 나는 예수니라. 모두 회개하여라. 캠퍼스는 기성에 있는 자들을 부지런히 깨워야 한다. 캠퍼스때 기성에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 역사를 깨달으며 완전 뒤집어져서 목숨바칠 자들이니 기성을 깨우고 기성을 접수해라. 그래야 이 역사 뒤집을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안될리가 있느냐. 어서 깨어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중앙에서는 각 지부별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와 이 시대를 깨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각 지부별로 불을 일으킬 자를 만들어라. 프로그램 연구도 하고 전면에 내가 나가서 해줄 것이다. 함께 하자. 함께 하면 분명히 되는 역사다. 회개하고 하나되어 성령의 불을 받아 문화와 말씀으로 캠퍼스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자. 내가 너희 선생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늘아버지는 언제나 우리편이니 걱정말고 두려워말고 해라. 불을 일으킬 자들을 어서 속히 찾아내서 정예부대로 만들어 속히 진행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방법이니 내말 믿고 이뤄내보자.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에 캠퍼스로 시작된 섭리역사 끝까지 캠퍼스 일으켜보자. 나는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예수니라.

· 가정국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랑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09.08.21금 새벽 03:27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찾다가 찾지 않는다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답답하다. 나의 사랑하는 심정아. 내가 너무나 답답하구나.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참으로 변덕스럽구나. 나에게 가까이 온 듯해 내가 더욱 너희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이 방심해 또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들의 한계가 참으로 가볍구나. 인간의 한계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구나.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이 늘 그러하듯 쉽게 한계에 부딪힌다. (갑자기 등 뒤에서 호느껴 우는 여자 소리가 들려 너무 슬퍼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음. 그래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위로해 드렸더니 말씀해 주심.)

<성령님의 말씀>

나는 너희의 천모, 성령이니라. 나는 참으로 외로운 자야. 외로운 자. 나를 찾는 이는 많지 않구나. 한 집안의 어머니는 모든 곳은 일을 다하며 다 살피며 하지만 늘 그들 뒤에 가려져 울고 있는 자들이 많듯 나 또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울증이나 슬픔이 많은 것이라. 너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눈물을 아느냐? 나의 그 사랑의 눈물을 받아라. 노심초사 늘 전전긍긍, 너희가 우리를 버릴까,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될까, 가슴 졸이며 서있는 나를 아느냐? 내가 심장병이 생긴거 같애. 늘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살았더니 내 가슴이 늘 답답하고 시도 때도 없이 쿵쿵쿵 아프고 답답하구나.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서 늘 조용히 울어주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자인데 나는 늘 슬프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를 원하지만 나의 눈가엔 늘 이슬이 맺혀 있으며 나의 눈가엔 늘 슬픔이 가득 차 있구나. 나를 보아다오. 너희와 좀더 가까워지고 싶다. 많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나의 눈물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나 좀 보아다오. 나 좀 기억해다오. 어머니 역할이 한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듯 이 섭리사에서 나 성령어미와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니 가정국에게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 내가 말하노라. 가정국은 듣거라. 나의 심정의 말씀을...(다음에 얘기하자며 말씀을 마치심)

<가정국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편지>

2009.8.21.금 이어 주신 말씀

가정국. 가정 천국을 이루며 하늘아버지와 성령 어머니, 나 예수를 최고로 모시며 더 신앙에 몰두하라고 너희 선생과 함께 키워왔지. 이 섭리사의 1세대부터 꼭 나와 함께 부지런히 뛰어 왔다. 자녀들도 많이들 키워왔고 이 섭리사가 가정국 너희들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든든한 믿음의 사랑의 울타리를 쌓으며 왔구나. 내가 너희 생각하면 너무나 기특하구나. 지난 날 나와 함께 성지땅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 오고 또 이 역사 또한 하나하나 함께 이루며 왔구나. 대견하다. 성지땅 야심작의 바위가 4번이나 무너졌으나 결국 완전히 쌓았듯 가정국들은 특히나 섭리사의 온갖 환난, 모진 바람 다 견디며 더욱 견고한 성이 되어 나와 너의 선생의 든든한 심정의 버팀목이 되어줬구나.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야. 키울 때는 갖은 애간장 녹이고 심정 태우고 힘들게 견디지만 성장하고 나면 자식만큼 부모마음 알아주는 자도 없거든. 너희들을 키워 온 보람이 그것이다. 부모마음 알아주는 자들. 내 심정 알아 척척 기쁨도 주고 위로도 하고 생명의 선물도 해주고 그것이 너희 가정국의 본분인 것이다.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너희 선생을 보필하며 이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몸부림쳐 온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너무나 수고했어. 이제는 그 수고한 것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때이니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라. 너희 가정국만큼 나와 너희선생의 손이 많이 닿은 부서도 없을 것이다. 젊은 날, 어린 날부터 시대의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모시고 이 역사 절대 믿음으로 너희 선생과 함께 왔노라. 그 술한 세월동안 함께 하였지만 너희들은 이제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거듭나 이 섭리사의 의연한, 무너지지 않는 돌과 같은 자가 보석이 빛을 발하며 나의 영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구석에 박힌 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돌의 본연의 모습이 빛나는 보석이었음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한다. 술한 세월이 견디다 보니 참으로 무더진 게 사실이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겨도 별 느낌 없이 늘 있어왔던 일인 듯 그렇게 인정해 가며 사는 너희들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너희들은 첫 사랑을 회복하여라. 그 지난 날 나를 향한 너희 선생을 향했던 너희들의 첫 신앙, 첫 마음을 회복하라. 젊은 날 이 역사를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 세월이 지나 너희 선생을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어 돌보며 자식을 키우는 자가 되더니 이제 많이도 굳어져 버렸구나. 나의 든든한 심정의 반석이 되어 줄 가정국들아! 이제 일어나라. 그 지난 세월의 경험으로 자신의 모든 신앙과 삶을 합리화 시키며 지내온 저희들. 일어나라. 나의 말씀의 망치로 두드리고 깨부서라. 돌보다 더 단단해진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지난 날, 젊은 날 너희의 모든 것 바쳐 뛰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섭리사에 오래 있었던 만큼 너희들은 더욱 깨끗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육신이 있기에 허다한 죄들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 술한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라. 가정국이면서 가정천국 이루지 못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탐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당을 짓기도 했으며 많은 자들을 무시하기도 했으며 도와주지 않는 자들 모두 회개하여라. 모두 내 발아래 용서를 구하여라. 나의 지난 날 그 사랑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자들이 아프게 했다. 나의 사랑을 몰라 다른 자의 품에 안겨 가정국이 된 자들도 있고 그 가정만 위해 살며 나와 내 아버지의

가정은 돌보지 않는 이기주의 같은 가정도 무수히 많구나. 내가 슬프다. 너희에게 수많은 기대를 하고 짧은 시간 함께 이 역사 이뤄왔건만 이제 너희는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뒷짐 지고 있구나. 잘 되는 교회, 부흥 되는 교회 가 보아라. 가정국들이 몸부림치며 교회 제반사를 두루두루 살피며 그 교회 가정의 모범이 되어 뛰고 있단다. 가정국이 본을 보이면 청년부도 장년부도 그리 할 것을 너희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없으며 이 세계를 깨울 수도 없겠다. 가정국들은 더욱이 자신의 가정에 매여 그 가정의 최우선을 나와 내 아버지로 두지 않고 각자 서로의 배우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자들이 많다. 나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구나.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한다. 뭐든지 그냥은 없다. 무엇을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니 지난 날, 젊은 날 열심히 해 나의 마음에 합당했던 너희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나와 너와 하늘아버지의 가정에 더욱 충실히 하여라. 그리하지 않으면 퇴색되고 변질된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비우고 모두 나에게 마음을 돌려야 한다. 가정국 중에서도 심정이 뜨거운 자는 더욱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믿는다. 그리해다오. 너희는 나의 편안히 거할만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그들이 되어 다오. 언제든지 너희들 곁에 가 위로를 받기 원하노라. 나와 내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겠다는 뛰어왔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아라. 무엇이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열심히 해 왔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아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였느니라. 아이 땀에 배우자 땀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정의 본분을 잃은 자들이니 그것 또한 타락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다 회개하고 회복하라. 너희의 자녀를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자들도 나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여라. 나에게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나의 하늘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니 앞으로 다가 올 날을 두려움으로 예비하고 진정으로 깨어 준비하여야 한다. 각 교회마다 가정국들 전부가 모두 같이 일어나 회개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라. 중앙부터 더욱 회개하여라. 진정으로 더욱 회개하여라. 진정으로 회개하여라. 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많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아 온전치 않으니 일을 맡길 수가 없구나. 나와 가깝지 않은 자가 누구냐. 지난날 너희선생을 통해 줄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주었거늘 지금은 너희의 지난 세월의 몸을 낮추고 겸손히 내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 할 때이니 어서 속히 나에게 나아오라. 이리하다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가 될까 두렵노라. 가정국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겁탈하고 흠집 낸 자들, 그들의 죄까지도 모두 너희가 담당하여라. 말만 많은 자들 나에게 합당치 않느니라. 나에게만 고하는 자들을 원하는 너희들의 사랑 예수니라. 굶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 힘써 지난 날 이 역사 일으킬 때와 같이 그렇게 너희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는 모습을 나는 너희에게 기대하니 너희 선생과 함께 한 지난날이 헛되지 않고 양약이 되어 지금 오고 있는 자들에게 깊은 심정을 전해주고 어미담과 같이 품어주며 위해주고 섬겨줘라. 자신들보다 연륜이나 나이가 적다고 교역자들 무시하는 가정국이 있으니 그런 자는 다 회개하고 온전하여져야 한다. 내 아버지가 무섭지 않느냐. 내 아버지께서 세우신 자들이니 나를 대하듯 나의 아버지를 대하듯 너희선생을 대하듯 모셔주는 자의 분이 되거라. 장년부나 청년부들 앞으로 가정국이 될 자들까지 두루 살피라. 교회에 배고픈 자들 있나 살피보고 밥 못 먹어 힘든 자 없도록 도와주어라. 그것이 내가 지난 날 너희선생과 함께 보여준 사랑이니라. 가정국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심정을 거스리니 하나 되지 못한 죄 회개하고 뽕뽕 뭉쳐 하나 되어서 열심과 충성으로 뛰어라. 자식 키우고 자기 가정에만 목숨 거는 자들 완전히 나와 상관 없는 자가 되겠다. 어찌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교회로 모두 들쳐 업고 끌고라도 와야 은하수도 자연스레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다. 가정국 2세는 나에게 합당한 자니라. 이미 나에게 합당한 2세들로 인해 너희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면 혼쭐이 날 것이다. 지금은 각 개인이 하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할 때이니라. 회개치 않은 자는 나의 아버지나라에 갈 자가 결단코 단 한사람도 없느니라. 자기식대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고 주일 신앙만 겨우 하는 가정국들 지난 날 열심히 해 온 것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자들 심판의 날에 서 봐야 너희들이 무서운 것을 알겠느냐. 심판대 위에선 아무리 울고 짜도 소용이 없다는 것만 알아라. 자고 있으니 그 심판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 그리하면 안 된다. 완전히 회개하라. 가정국은 신앙 더 잘하라고 축복해줬건만 1주일 내내 울 수 있음에도 핑계 대며 1~2번 교회 오는 자들 다 심판이다.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구나. 양심이 있으면 알 것 아니냐. 양심법부터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가정국들 지난 날 목숨 걸고 뛰어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리해야 한다. 너희들 너무 마음 편히 살고 있다. 성령도 가정국이 제일 많이 못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전부 주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령을 받아야 지난날의 모든 것 비우고 나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느니라. 나의 아버지께 간절히 피 토하는 심정으로 간구해라. 될 때까지 목숨 걸고 간구해라. 회개되지 않으면 결단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리 될까봐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너무나 탄다. 내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 성령어머니의 마음, 너희 선생의 마음 받고 제발 발바닥이 불나도록 몸부림치고 뛰어다오. 세상 끝 날이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육적인 것에 목매지 말아라. 예배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예배는 내가 집행하고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리니 일찍부터 서둘러 나와라. 누구 핑계대지 말아라. 나에게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 섭리사의 든든한 바위가, 그들이 되어 다오. 너희에게 바라노라. 나의 사랑하는 마음 받았느냐.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심판의 날에 서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려는 나와 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느냐. 너희의 부족함으로 너희가 그리도 사랑하는 너희선생이 그 차디찬 곳에 있는데 너희 가정만 바라보면 되겠느냐. 끝까지 의리를 지켜다오. 그리하여 나와 상관있는 자가 되어다오. 든든한 가정국이 되어 너희 선생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을 좀 나눠 가져가다오. 너희 선생 너무 안타깝구나. 가정국 중에 하늘과 통하는 자 기다린다. 내가 늘 지켜보고 있으니 절대로 나 의식하며 내 마음 위로하며 나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구나. 나는 너희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 가정국들 기대한다. 안녕.

• 은하수에게 주시는 예수님 편지 말씀 <주온빛 목사>

귀여운 나의 꿈나무, 희망나무 은하수야.

은하수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은하수는 은하수를 넘기까지 나 예수님을 사랑하라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귀여운 은하수 땀에 나 예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꺼꺼꺼 하하하 웃는다. 너무 작고 귀여운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진다. 지금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쁜 모습 영원히 잊으면 안 돼. 아유, 귀여워라. 우리 은하수들. 내가 너희 땀에 웃는구나.

가정에서도 아이가 있는 집은 그 집에 늘 웃음꽃, 사랑 꽃, 화목 꽃이 넘치게 되는데 이 섭리사의 은하수는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귀엽고 사랑스런 은하수들, 나 예수님과 멧쟁이 하나님과 어여쁘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지?

우리 은하수와 함께 하면 나의 아픈 근심, 걱정 모두 잊게 되는구나. 모두 잊게 돼.

때론 너희들이 언제 커서 내 맘 알아주나 하고 보기도 하지만 보기보다 너희 참으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은하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죄가 쌓이게 된다고 했지. 사실이다. 그래도 너희는 아직 어리니 너희 얼마나 아빠보다는 쉬울 거야.

늘 집에서도 내 이름 늘 부르면서 사진과 대화도 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영광도 돌리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 위해 기도도 하고 힘도 드려야 한다. 조은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고.

부모는 자식이 말하면 꿈쩍 못하는 법이니 너희 은하수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델이 되어다오.

은하수는 어릴 때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완전 군인이다. 실전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완전무장한 군인인 거야. 늠름하고 씩씩하고 멋진 군인. 멧쟁이 하나님과 어여쁘신 성령님과 나 예수, 또 귀한 말씀 가르쳐주시는 살인미소 선생님까지 꼭꼭 지켜다오. 그 미소 나 닮은 거야. ㅋㅋ (예수님의 웃음소리 들림) 우리는 귀여운 은하수를 지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완전 무공해,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들이니 끝까지 나만 보고 가야 된다. 나만 사랑하다가 다른 것 사랑하는 은하수 보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플 거 같애. 나 아프게 안 해 줄 거지?

TV나 게임, 만화영화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 부모들은 만화도 성화같은 것을 보여 주도록 해.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일평생을 가기도 하거든. 그러니 은하수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깨끗한 하늘아버지의 선물들이니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잘 돌보아 줘야 한다.

하늘아버지와 성령어머니와 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해. 알았지? 그래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염둥이 은하수들, 이쁘고 사랑스런 나의 은하수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 많이많이 돌리도록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니 꼭 그리 부탁한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수많은 자들로 인해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 그거 몰랐지? 이제 말씀해 주니까 내 말대로 실천해야해. 그래야 우리 은하수 더 사랑해 주지.

은하수는 부모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해야 하니,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꼭 하나님의 사랑하는 첫 번째 선물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

우리 은하수들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읽고 보도록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 나 예수의 마음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알았지.

지금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 절대 잊지 말고 흠집 내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손잡고 같이 가자. 모두 데려가길 원한다.

사랑하는 귀염둥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꿈나무, 희망나무 은하수들아! 안녕. 다음에 또 편지 해 줄게. 그리고 항상 이성은 은하수도 조심하고 또 조심히 해야 한다. 왕 사탄들 짓이야. 내 이름으로 꼭 기도해라.

사랑하는 킹왕짱 멋진 예수님이.ㅋㅋ. 안녕

• 은하수 교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말씀 <주온빛 목사>

2009.8.21.금 저녁 천국성령운동 후 기도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은하수 교사들! 수고가 많다. 너희 선생 계순이도 어릴 적 주일반사부터 하면서 더욱 내 눈에 띄었었다. 일일이 챙기면서 많은 인원으로 불러왔으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 말씀 잘 가르쳐 주고 좋은 문화 같이 넣어 주면 잘 따라 올 것이다. 은하수 교사들은 연령대에 맞춰서 제대로 주님 심정 교육해 줘야 한다. 이젠 재림 말씀이니 그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하도록 교육해 주고 회개도 꼭 시켜야 한다. 섭리은하수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더욱 더더욱 더더욱 회개도 시켜야 한다.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도 갖추게 하고 세상 아이들과는 다르게 행실의 본이 되게 해 줘야 한다. 어리다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은하수 교사는 부모도 교사가 되는 법이니 반드시 부모교육도 해 주면서 어릴 때부터 하늘 심정 제대로 알고 세상에서도 누구보다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라. 정신을 잡으면 세상은 따라 올 수밖에 없으니 절대적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하수를 멋지게 성장시켜야 한다. 은하수는 안 보는 듯 하지만 집에서 부모의 습관, 교사의 습관, 또 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의 습관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마련이니 오염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이들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교육밖에 없다. 심정적으로 은혜롭게 깨닫도록 하늘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 이루어 드리도록 해라. 더 하지 못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주마. 어린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하늘 앞에 합당하도록 키우려면 늘 교사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수고가 많다. 어린 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늘. 교회서나 은하수 어린이집 교사들 너희의 그 공적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으니 진심으로 하늘아버지, 성령어머니의 그 근본의 마음으로 잘 길러주길 기대한다.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교역자들은 챙겨주고 부모들은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도와 함께 해주도록 하여라. 함께 해 주니 고맙다. 나와 같이 선생의 길을 가는 너희들이 대견하다. 사랑한다. 너희 선생 예수. 안녕.

• 장년부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2.토 오후 6시 16분에 주신 말씀

내가 말하겠다. 적어라. 지금부터 섭리에 가장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장년부에게 나 예수가 편지할 것이다. 잘 들어라. 사랑하는 장년부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너희의 예수니라.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지. 백발을 휘날리며 나를 손꼽아 기다리지. 너무나 고맙다. 고맙구나.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니 나 또한 설레이는구나. 너희와 나 사이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지난 세월 물질, 명예, 사랑에 목숨걸며 왔지. 이제 나 예수에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벌면서 오니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권위의식만 생긴 어른이 되어 버리고 외롭고 외로운 자들이 되었구나. 이제 너희의 그 외로운 마음 나 예수에게 풀어라. 나 예수도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느니라. 같이 사랑하자.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하늘아버지께 매달려라. 너희는 세월을 먹었고 너희는

인생을 먹었으며 너희는 공허함을 먹었구나. 너희가 산 세월동안 결국 느끼고 깨달은 것은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것과 참으로 속절없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만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도 큰 도이지. 젊은 SS, 캠퍼스들은 세상에 나가고 싶어 안달이지만 너희 장년부는 이제 그러하지 않지. 요즘엔 젊은 장년부도 많아져 많이들 싱그러워졌다. 나의 장년부들 너희들을 보는 나의 마음이 궁금하지? 너희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마치 한 집안의 장남, 장녀들을 보는 것과 같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든든하게 일도 해결하고 심정도 맞춰주고 마음도 통하게 되는 그 장남, 장녀들 말이다. 그래서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처음 내 곁에 올때가 조금 어려웠지만 한번 오고나면 절대적인 추종자들이 되어주는 나의 장년부들이 참 든든하고 고맙구나.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알아주며 함께 뭐든 할 수 있는 너희는 나의 동반자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 마음이 느껴지느냐? 내 마음이 깨달아지느냐? 함께 하니 기쁘고 고맙다. 장남 장녀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책임감때문에 부모와 사랑하는 자와도 많은 대화를 하지않기 마련이다. 그런 습관이 너와 나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벽이 되었으니 그런 벽을 없애도록 해보자.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끼리는 비밀도 없어야 하고 행복한 것 뿐만 아니라 아프고 쓰라린 마음까지도 서로 나뉘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니라. 그러니 어서 속히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사랑을 고하고 사랑을 간구하여라. 그래야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합당하겠다. 장년부라고 해서 젊은 자들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앞에 나와 사랑을 쟁취하여라. 가만히 앉아서 가마니만 쓰고 있지 말고 사랑의 열차에 올라타라. 나는 사랑의 예수니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니라. 너희는 속으로는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상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구나. 못하는구나.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각자에게 원하고 바라는 하늘아버지와 성령어머니와 나 예수의 사랑은 전부 다르니라. 사랑에 목마른 장년부가 너무나 많구나. 섭리 왔다가 결혼하고 돌아온 자들, 내 마음 그리도 많이 아프게 하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을 짓게 하거니만 이제 너희의 모습 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 너희들의 구원까지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의 섭리에도 불려졌으니 어서 더욱 회개하고 나의 손을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더욱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아버지의 화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으니 더욱 회개하여야 하는 거 절대 잊지말되 사랑 앞에는 목숨걸고 앞으로 누구나 다 나아오라. 너희는 너무나 사랑에 목마르구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느냐? 장년부는 권위에서 내려와 하늘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나의 사랑을 위해 우물도 파고 갇은 몸부림 치면서 사랑을 쟁취하거라.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앞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라도 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의 심정을 절대 잊지말고 그 첫 사랑을 나에게 회복하라. 너희의 첫 사랑은 나 예수가 되었어야 한다. 너희의 첫 사랑을 뺏긴바 되었으니 어서 속히 그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해야 된다. 나이는 먹는 만큼 죄가 많아지는 것 알지? 나이 많은 게 자랑만은 아니다. 그 허다하고 술한 죄를 진정으로 낱낱이 회개해야 한다. 너희의 죄가 깨끗하고 온전하여 질때 너희는 나와 더욱 완전한 사랑을 하겠구나. 너희의 지난 날 죄로 인해 나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라. 모두 내 발아래 무릎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 모두 내 발아래 엎드려라.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생각도 노후된 모습으로 살면 안된다. 이 섭리사에 왔으니 섭리에 젊은 기운을 수혈받아 젊은 하나님과 정신과 사상으로 거듭나라. 세상에서의 습관을 모두 버려라. 숨어서 술먹고 담배 피는 자들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 내 앞에 온전한 자만이 내 앞에 기쁨이 되니 온전하게 나오라. 세상에서 얻어 온 나쁜 것들 모두 버려야 한다. 세상에서 속히 나와라. 아버지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 명심하고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 세상에서 얻어 온 나쁜 것들 모두 버려야 한다. 아직도 TV보고 세상것 좋아하는 자들도 많구나. 어서 속히 회개하고 끊어 버려라. 끊어 버려야 한다. 세상의 것 끊지못해 나와 끊어지면 어찌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아 온전치 못한 것을 거듭나도록 허락해주셨으니 목숨걸고 간구하여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먼저는 근본으로 회개해야할 것을 깨닫고 근본으로 회개해야하는 것이다. 근본의 회개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아직도 이 섭리사에 100% 회개된 자가 많지 않구나. 분발하여라. 분발해. 젊은 장년부들과 원로 장년부들이 조화롭게 섭리의 일을 멋지게 도와 큰 울타리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섭리를 우습게 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어딘가에 매이면 눈치도 봐야하니 장년부가 군대같이 일어나 더 많은 일을 해다오. 젊은 장년부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 중앙은 지루하게만 하면 안된다. 다양한 색깔로 젊은자들이 와도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라. 먼저 온 자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세상의 것에 투자해서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잘된 것 증거해 주면서 내 발아래 모두 나아오도록 해주고 재

림의 말씀 급박하게 전해주도록 하여라. 준비가 미흡하여 나를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하나하나 두겹, 세겹, 네겹 튼튼히 동이고 쌓아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라. 명예를 가진 자들이나 세상의 간판을 가진 자들이 나와 함께 큰 자들도 전도하자. 나 또한 그 시대 제대로 된 관원이 없어 그 엄청난 일을 겪었다. 하지만 하늘의 길이기에 기쁨으로 간 것이다. 이 시대 또한 너무나 악하니 장년부들은 세상의 것을 갖춘자도 하늘 앞에 오게하여 밀어부쳐라. 기성에서 온 자들 많지? 기성에서 온 자들은 기성을 이끌어 오도록 연구해야 한다. 너희들은 술한 세월을 기성에서 보내고 이곳에 오니 너무나 행복하지 않더냐. 기성앞에 큰 소리로 증거해다오. 앞으로 하늘아버지와 너희 선생과 구상하는 것들이니 기성을 예비하라. 기성을 맞도록 하라. 나와 함께 하면 불가능은 없다. 너희의 절대적 믿음과 사랑으로 이뤄내보자. 자녀들 키우기도 힘든 것이다. 그들의 구원에도 신경써라. 아무 생각없이 부모 따라온 것이기에 처음엔 반감도 많고 재미도 없어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도 좋아하니 하나님을 통해야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라. 혼자 짝없이 온 자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라. 교회 목회자들과 배우자와의 자연스런 만남도 주선하고 교회 행사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본인이 참여하니 와서 구경하게 해주면서 친분을 쌓게 만들어 주며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해주니 포기치 말고 끝까지 해라. 어린 자녀들은 은하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시켜 남편들은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라. 뭐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가장 잘 되는 방법이니 말씀대로 해야한다. 그게 정답이다. 그 동안 세상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힘들고 답답했던 모든 마음 이제 나에게 고하고 완전하지 못했던 너와 나의 사랑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회복시켜 나가자. 나는 깨끗한 것을 원하는 예수니라. 나는 온전한 것을 원하는 자니라. 교회에서도 쑥 깊이 들어가 어른답게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교역자와 하나되어 두루두루 살피며 일해야 한다. 성경만 들고 다니는 기성과 같은 신앙은 버리고 사랑하는 자가 늘 계시는 이곳으로 와 함께 해다오. 그래야만 한다. 옛것은 버리고 온전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챙겨주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린 자들 부모처럼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해줘라. 배고픈 자들 없게 하고 열심히 뛰는 자들 함께 은혜 나누며 불도 받고 더 은혜로 날마다 내 앞에 나아오라. 너희 선생을 위해 함께 해줬던 모든 장년부들 너무나 수고했다.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알아라. 절대 서운함 타지 말고 수군대지 말고 오직 하늘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거라. 그래야 한다. 늘 회개에 힘쓰고 몸부림 치며 끝까지 긴장하며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나 예수의 재림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내 앞에 나와야 한다. 믿어지지 않는 자들 안된다. 조금 더 일어나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 예수니라. 안녕.

(이렇게 하고 장년부 말씀이 마쳐짐. 2009.8.23. 일 새벽 3시40분경 어제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장년부에게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심)

<장년부에게 주시는 못다한 예수님의 편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장년부에게 못다한 얘기가 있어 조금 더 편지 한다. 너희는 나의 재림을 믿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한 나의 말을 믿느냐? 믿어야 한다. 곧 내가 온다. 내가 온다. 이 역사, 이 말씀 굳게 믿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나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를 맞이할 수 있게 될것이니라. 이 섭리사 안에서 재림에 잠자고 있으며 나의 말씀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서 깨어나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마지막의 끝자락에 서있기에 특별히 섭리사,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권면한다. 어서 온전히 내 이름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진정으로 참으로 진실로 회개하여 온전히 나를 맞이할 자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지 않고는 영원한 고통에 서있어야 한다. 나의 하늘아버지는 이 지구촌 모두 천국집 본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니 나의 말씀에 깨어나고 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 예비하고 준비하길 간곡히 부탁하고 원하노라.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장년부들 섭리사에 큰 일들 하면서 늘 깨어있고자 몸부림 치면서 왔으나 너무 열심히 뛰다보니 가장 중요한 이때 자고 있는 자들, 피곤해 하는 자들 너무나 많으니 속히 깨어나야 한다. 너희 선생 계순이처럼 깨어있는 자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어서 속히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 잠자고 있는 기성까지 모두 깨우길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말고 온전히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살아나도록 온전히 회개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라. 힘들어 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하늘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다오. 내가 마지막이라 너무나 바쁘구나. 너희 섭리사 이 장년부가 깨어나서 나의 재림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자와 잠자고 있는 자를 어서 속히 깨워 마지막 역사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재림을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다오. 마지막으로 말씀했으니 더욱 깊이 있게 듣고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없느니라. 더 이상은 없느니라. 함께 하니 기쁜 장년부야! 나의 기쁨으로 거듭나라. 사랑한다. 안녕.

• 교역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3.일 새벽 3시 40분경에 받은 말씀입니다.

교역자들 안녕! 나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니라. 너희에게 나 예수가 말하노라. 편지하노라.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소떼와 양떼를 두루두루 살피며 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 노력했구나. 너희들의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교역자들 각자 한 곳에 교회를 맡아 이끌고 있지? 이끌면서 나의 심정 느꼈느냐? 나의 심정 받았느냐? 두 곳의 교회를 이끄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난 전 세계를 돌보느니라. 한 교회만 이끌어도 온갖 세포 하나하나의 신경까지 세어가며 몸부림 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몸부림 통해 뭔가 깨달았어야 한다. 나의 심정을 깊이 있게 받았어야 한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나의 아버지의 계획을 깨달았느냐? 단 한명의 생명도 낙오됨 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바라시는 그 심정을 받았느냐? 지금 급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나의 재림의 말씀에 깨어났느냐? 교역자들은 특히나 지난 30년 너희 선생과 함께 해오는 날들이 다른 자들보다 많기로 더욱 이 말씀에 깨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너희들, 이곳 섭리사와서 말씀 들을 때 들었던 말씀중에 하나는 고정관념,인식관을 깨야한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난 30년간 말씀으로 또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빨리빨리 빠른 구름이 되어 나의 심정을 깨달으며 준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많지 않구나. 이 말씀도 심정으로 전해줘야 하거늘 나의 심정 받는 자가 얼마 되지 않구나. 나의 심정을 받고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는 불같이 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어나고 심정을 받아야 불같이 이 섭리사뿐 아니라 기성까지도 깨우고 이 역사를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지난 날, 너희 스승을 통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며 따라왔을 것이다. 순수하게, 순결하게 오직 하늘 향한 일편단심으로 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그 모습으로 교역자들은 일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나의 재림에 깨어있지 않은 자가 왜 이리도 많느냐?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있을 줄 몰랐다. 무조건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생각이 너무나 굵어졌구나. 앞에서 말했듯 교역자들의 본분은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역사를 전하는 것이어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모든 생명에게 잘 대해줘야 하며 심정도 전해줘야 하니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죽여야 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너희들은 온 것이다. 장하다. 기특해.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고와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나야 한다. 마지막 버려들을 당하고 데려들을 당하게 되나니 독한 마음 먹고 죽을 각오하고 나에게 하늘아버지께 목숨걸고 매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다간 너희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자가 나의 심정 전하겠느냐? 교역자 수련회때 조은이 강사 봤지? 무슨 심정 받았느냐? 나의 심정 받았어야 했느니라. 그리하여야 나와 대화가 되고 나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나의 심정 받지못한 자들 더욱 기도로 매달려라. 아직도 단상에서 기도하면서 조는 자들이 수없이 많구나. 내가 하루에도 몇번씩 찾아가며 부르고 불러도 나에게 대화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구나. 지난 30년간 너희 선생과 함께 하면서 나를 느끼고 보지 않았던냐? 그리하였음에도 너희들이 어느 덧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오질 못하는구나. 목회하는 것을 무슨 그냥 직장다니는 듯 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나? 나에게 합당함을 내어보이라. 나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나의 하늘부모에게도 합당치 않은 것인데 어찌 하겠느냐? 백성은 구원시켜려 하면서도 너희 구원은 뒷전에 두는구나. 그리하면 안된다. 너희가 각 교회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니라. 나는 목회도 잘 했고 그 동안 지난 날 열심히 해왔는 데 하는 자들, 그것은 옛날 생각이니 버려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자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미래에 모습이다. 지금 목회대기하면서 뒤쳐진 생명의 감각이나 재림 말씀의 감각을 더욱 회복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쳐지게 된다. 더욱 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여 기도로 나와 대화의 문을 뚫고 나의 심정을 받길 나는 원한다. 많은 자들의 생명을 옳은 길로 인도하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다. 나는 온 지구촌을 다 살피는 주 예수니라. 나와 같이 온 지구촌을 보며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 누구냐? 그러한 자 나에게 합당하거늘 아직도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교회의 죄도 회개하지 못했으니 어찌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제발 깨어나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하도록 하여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합당치 않은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울고 계시는 나의 성령어머니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그 차디찬 곳에서 목숨걸고 하는 너의 선생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느냐? 아직 멀었다. 하지만 때는 곧이다. 때는 곧이야.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쳐 이 지구촌을 휩쓸어버리고 말것이다. 환란의 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지도 모르고 순간만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끝나면 절대 안된다. 그 나라만큼은 가지않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교역자들아! 어서 깨어나고 일어나라. 조은이 좀 보아라.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자신의 몸을 돌볼 사이도 없이 나의 심정 하늘 심정 받으니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뛰고 있지 않느냐? 그 심정을 느끼겠느냐? 너희와는 통하지 않는구나. 나와만 통하는구나. 심정받은 자는 애가 타서 아마 미칠 지경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한 자는 더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 치면서 너희 선생처럼 더 이상 할 수 없을때까지 목숨걸고 해야한다. 그래야 내가 직접 키운 자들이라 하지 않겠냐? 나의 심정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 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라면 어찌 나에게 합당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교역자들 사모님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빼고 교역자님들에게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어서 말씀하겠다. 교역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라. 단상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자 적구나. 죄짓는 자는 많은 데 회개하는 자는 적구나. 너희들이 회개에 깨어나서 어미 태속의 이전의 죄까지 모두 회개하였느냐? 순간 마음으로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도 모두 회개해야 한다. 교인에 교회에 죄까지도 낱낱이 조목조목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무나 죄가 많구나. 목회 비법 코치한다. 나의 스타,SS들을 대할 땐 어리지만 하늘앞에 하는 모습을 보고 키울 자를 빨리 키워 지도자로 세워주고 강의나 말씀을 전해줄때는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조금은 높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게 깨닫고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지금은 가장 급히 나의 재림에 대해 깨워주고 전도도 그물 전도를 해야한다. 기성에서 온 자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 주어야 한다. 이방은 사후세계에 대해 잘 믿지 않으니 전에 말해줬던 필독서들 읽게 하면서 관을 하나하나 깨워야 한다. 교사들과도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교역자와도 SS는 가깝게 지내도록 해야한다. SS들은 교역자와 세대차이가 있다보니 교사들의 수준으로만 교육이 되는 게 하나의 문제다. 잘 함께 어우러져서 코치해주고 같이 해나가야 한다. 캠퍼스들은 지식의 전당이니까 하나님을 지식의 수준으로만 알고 가는 자들이 많다. 그러하지 않도록 그들의 근본의 마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세상 앞에 조건 잡힌 것이 많으니 그 중에서 선별을 잘 하여 먼저 울자들 먼저 오도록 끊임없이 교역자들은 같이 전도해주고 관리해줘야 한다. 아직 캠퍼스가 너무 약하니 지난 날 너희가 뛰었던 캠퍼스를 회상하며 불을 일으켜야 한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SS에 비해 수적으로 너무 약하다보니 많은 관심을 받지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 교역자들은 캠퍼스에 직접 뛰어들어 잘 코치해주고 가르쳐 주어라. 그냥 온실속 화초처럼 커온 아이들이라 어려운 점이 많으니 개척자의 정신과 기질을 심어주어 조건도 같이 캠퍼스에게 심어주고 캠퍼스에서 세워주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내어주도록 해라. 기성에서 뛰는 자들을 잘 요리해야 한다. 목숨걸고 땀 자를 찾아라. 말씀에 인생에 곤고한 자를 찾아라. 청년부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 인생의 곤고함의 무게가 큰 자들이니 일하고 피곤에 지친 자들이니 먼저는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 위에 나의 말씀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자신의 고집과 주관이 강하게 잡힌 시기니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지금의 급한 말씀을 순리적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직장에 매이고 교회 와서도 지치면 오고싶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 알아주고, 하지만 하늘 앞에 해야할 것은 반드시 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 영원한 그곳 가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피곤한 것이 나은 법이니라. 가정국이나 장년부는 그들의 삶의 연륜이나 경험은 인정해주고 세워주되 말씀의 권세 앞에는 모두 엎드려 순종하게 해야한다. 지난 세월 너희보다 많은 말씀을 들은 자들도 많기에 너희들이 신령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국,장년부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사고가 있는 자들이니 인정해주면서 말씀 앞에는 꼭 순종하도록 하는 다스림의 능력을 받아라. 나이 든 자들에게는 더 겸손해지고 더 높여줌으로 그들 스스로가 내려올 것이니 잘 대해줘라. 자고 있는 가정국들 많다. 지난 세월 믿고 그러하니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줘라. 회개의 역사, 연속적으로 진행해주고 장년부들 또한 나의 재림에 대해 계속 가르쳐주고 기성과의 차이를 모르는 자도 많으니 말씀으로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잘 잡아줘라. 큰 자들도 순수한 너의 선생처럼 대해줘야 한다. 은하수들 작다고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말고 나의 이 말씀은 천년을 가는 말씀이니 말씀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라. 어린 아이부터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큰 일이니 제대로 온전한 것만 넣어주고 잘 살피주면서 교사들과 같이 해줘야 한다. 각 교회 예술단들 잘 살피줘라. 그들은 죽으나 사나 밥만 먹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재림 말씀 나온 이후로는 영광돌리는 것에 참으로 많이 무뎠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성령님의 슬픈 마음 늘 영광돌려 위로해 드릴 수 있게 방향을 잘 잡고 나가라. 교회선 끊임없이 영광돌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이 내 아버지께 합당하느니라. 또 계시받는 자들이나 성령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자들 잘 살피주고 자꾸 만나주며 기도로 뒤에서 자꾸 받쳐 주도록 하여라. 너희들의 진심을 보여주고 진정을 보여줄 때 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더욱 나를 찾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나에게 올 영광 가로채는 자가 있구나. 교회에 눈이 되어 일하는 자들과 절대 하나되고 하늘을 위해 목숨바치며 가는 자들 힘든 거 없나 잘 대해주고 살피봐야 한다. 그들은 나만 보고 가는 자들이니 너희가 내 대신 많이 신경써 주어라. 육신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마음 전해다오. 너희 선생과 조은이 강사 위해서도 꼭꼭 기도 많이 해줘야 한다. 심정받아 끊임없이 기도로 힘을 더해줘야 한다. 알았느냐? 고맙다. 내 말 알아듣도록 키운 너희 선생이 또한 너무 고맙구나. 너희들 나 절대 중심해. 이 역사 부지런히 깨우는 시대의 선봉장 역할을 해다오. 그리하여야 한다. 너희들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의 심정과 같은 간절함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할 것이니 부지런히 전도하고 강의하고 관리하여라. 알겠느냐? 자리에만 앉아있는 자, 앓은뱅이같은 신앙이 되겠다. 이제는 걷지도 말고 뛰고 날라다녀야 하는 때이니 그 동안 받은 은혜로 온전히 무장해 적지에 나가는 군인처럼 담대히 뛰고 달려라. 참, 군대간 자들 편지로 말씀 잘 관리해주는 것도 잊지마라. 참 힘든 곳인줄 알잖아. 너희 선생은 그 마음 알 것이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곳인지. 위로하는 편지도 해주고 면회도 가고. 알겠지? 너희가 함께 해줘서 내가 너무 든든하고 고맙구나. 하지만 끝까지 변치말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 나도 끝까지 함께 할테니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늘 앞에 목숨걸고 달라고 간구하여라. 합당한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진정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주 예수니라. 신령함으로 늘 새벽을 깨워야 한다. 부탁이다. 너희는 똥차 말고 최신형, 새차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차 운전해 주지... 똥차 싫다... 내 사랑, 내 자랑 교역자들 사랑한다. 안녕.

• 교역자 사모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3.일 새벽 3시 40분경에 받은 말씀

교역자 사모들! 정말 수고 많다. 자식 돌보라, 없는 살림에 눈물, 콧물 흘리며 몸부림 치는 너의 모습. 내가 안다. 육적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삶을 유지하는 차원만 있으면 되느니라. 집이 없어, 차가 없어, 서러웠지? 나의 나라에 오리라. 다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노라. 아무 걱정말고 너희 사모들은 교역자 내조 잘 하고 교회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의 손이 가지 않는 곳 있나 잘 살피주고 뒤쳐진 자 있으면 조용히 위로해 주고 성령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피줘야 한다. 교역자 사모가 되기까지 성령님이 감동시키느라 애좀 쓰셨다. 그 수고하심 헛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조용히 본이 되어주는 어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역자는 좋은 데 사모가 어미품같지 못하면 목회하는 데 손해보는 일이 많게 되니까 너희들은 성령어머니께 많이 간구하고 같은 입장이니 많이 위로해 드려라. 그 심정 누가 알겠느냐? 어미의 심정, 자식 낳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사모들, 새벽기도 꼭꼭 교회 나가서 하고 애 키우라, 생계도 책임지라 수고가 많지만 너희도 나와 일대일의 관계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가정에서도 교역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잘 모셔주어라. 교역자들도 성령님 대하듯 사모들 마음 위로해주고 심정 위로해 주어라. 여자들은 심정만 알아주면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견디어 줄 수 있는 자들이니 그리 알고 대해주어라. 자식들도 교회에 본이 되게 교육 잘 시키고 목회들은 교회 성도 신경쓰다가 자식 교육 놓치는 일 없게 해라. 잘 키워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야 나에게도 합당하다. 그리할 것을 믿는다. 온전히 못한 자들 있으니 너희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회개해야 하는 것 잘 알지? 함께 해보자. 완벽하게 하늘 앞에 매달려 나의 재림 꼭 준비하라. 꼭이다. 사랑하는 사모들 안녕.

• 예술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4.월 새벽 3시17분경에 받은 말씀

너희가 나의 첫 사랑이 식었구나. 첫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나만 바라보던 그 시간으로 돌이키고 회복하여라. 회복하여라. 회복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너의 사랑에 온전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나의 신부 예술단아! 나 너희의 근본의 기쁨, 예수니라. 편지로 너희에게 말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너희 예술단은 처음부터 너희 선생과 함께 30년 이 섭리역사 가운데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해왔다. 늘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너에 선생의 사상이 나에게 합당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온전히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역사 함께 해왔으며 문화와 예술 또한 섭리역사는 앞서가고 발전하게 되었다. 태초에 온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림은 자식이 어미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그리도 합당한 역사니라. 이 섭리사 가운데 이 예술을 통해 무수히 많은 자들이 내 앞에 왔느니라. 내가 예술단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의 근본인 나 예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더욱 합당하리라. 이 섭리사 가운데 나의 아버지께서 많은 하나님의 깨어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계셨다. 우리가 날마다 끝없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늘보좌에 영광 돌리는 일 끊임없이 하길 바라셨다. 너의 선생 계순이가 그 기준이 되어 먼저는 하늘 앞에 날마다 목청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예술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술을 했으며 그의 육체가운데 실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구나.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술단의 삶이니라. 예술단아! 너희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여호와를 소리높여 송축할 지어다.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니라. 너희들은 무조건 죽으나 사나 밥만 먹으며 끊임없이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구나. 나의 아버지 아픈 마음, 성령어머니의 슬픈 마음 너희들이 하늘의 대상체가 되어 위로해 드려야겠다. 너희들이 하는 예술은 하늘 나라에서는 너희들 상상초월이다. 하나님이 지구땅 보시면서 눈여겨 보시는 곳 이 섭리사에서 진정으로 끊임없이 드러지는 영광은 정말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순간이라도 내려놓게 하는 구나. 사람도 곰같은 부인보다는 여우같은 부인이 낫다고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도 이쁜 짓 하고 영광돌리길 원하노라. 너희가 무수히 많은 날동안 하늘 무대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였으나 너희 스스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것이 많았으니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만 생각하며 이 역사 하늘품에 기쁨으로 보아달라고, 살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길 원한다. 예술단은 부부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토끼같은 자식이다. 귀엽게 앙증맞게 사랑스럽게 영광 돌려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끊임없는 영광의 성전이 되었듯이 예술단 너희들 하나하나는 더욱 깨끗하여지고 순결하여져서 자연성전과 같은 성전이 되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지난 날 무수히 많은 자들이 나의 아버지보다 예술을 더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보다 이성을 더 사랑한 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나와 내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로 변질되었었다. 변질되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변질된 것은 고약한 냄새가 날뿐 아니라 차마 볼 수도 없는 것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 위로하는 기쁨조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어서 속히 모든 근본의 문제 해결하고 회복하라. 예술단들, 예술을 할 때 이제 육적으로만 영광 돌리는 예술의 차원을 벗어나 하늘 아버지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예술을 해야 한다. 예술안에 나 예수의 사랑과 정신이 들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예술단을 이끌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질되었으니 너희들은 신령한 예술을 하고 거듭난 부활된 변화된 예술을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리하여야 이제는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겠노라. 뭘 하든지 진실과 진심이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니 울리는 썩과리에 불과하니 그리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드려라. 너희들이 거기에 힘쓰고 몸부림 칠때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술의 모든 구상 또한 주시리라 믿는다. 나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모든 손짓과 발짓으로 나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킬 예술을 준비하여라. 너희들을 지난 날 배고프면서까지도 키워온 이유 천사장 나팔 불때,마지막 이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하늘이 구상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해드리기 위함이었으니 예술단 지도자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늘 앞에 무엇이든 간곡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좋은 것을 얻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예술단에게 구상하시는 것이 있느니라.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예술단을 빼놓고 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예술단 근본으로 더욱 회개하라.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해 하늘 마음 회복시키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육적인 예술에만 목숨거는 자들이 많다. 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맞이하는 것이니 너희 예술단

또한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지난 날 너희의 수고와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마웠고 수고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것들이니 육적인 모든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예술이니 영적인 하나님 차원의 예술로 거듭나고 거듭나고 부활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 나의 기쁨이들! 나의 기쁨이 예술단들! 너희의 꾸준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기쁨의 몸짓들이 이제는 생명을 옴은 길로 오게하고 나 예수의 재림을 깨닫도록 하는 데 써야겠구나. 너희의 모든 물은 땀으로 흘러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야겠다. 지난 날 잘못된 모든 일들 회개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나의 재림에 깨어있느냐? 예술을 가지고 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육신의 몸 껍데기로만 영광 돌렸던 모든 것들과 육신을 온전히 사 용치 못한 것 너희의 모든 근본의 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한 자만 내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예술을 하게 허락할 것이다. 나의 허락을 받지못한 자는 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술단이 되지 못하리니 온전히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하여라. 늘 하던 것이기에 하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지못한 것과 나 자신의 기쁨에 취해 영광 돌린 지난 날의 모습을 어서 속히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몸으로 사람을 대한 죄, 더 정숙하지 못한 죄 하늘 앞에 고하여라. 시인하여라. 그리할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히 여기 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것만이 오직 나 예수에게도 합당한 것이니 그리하여야 할 것이니라.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함께 해다오.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나의 단짝 예술단들 첫 사랑을 모두 회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 무대 섰던 그 심정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함께 그 나라 가길 소망한다. 말씀의 뿌리가 약한 예술단은 나의 깊은 심정을 받을 수 없으니 말씀에 소홀히 한 자들 말씀을 깊이 보며 귀히 보며 귀히 여기며 말씀에 푹 빠져 나의 심정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다보니 너희가 이 말씀 통해 나타나시는 나의 아버지의 깊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술단은 각자가 모두 개성이니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가 서로만 뽐내다 보면 전부 시들은 꽃이 되고 말지니라. 하나 되어라. 모두 손잡고 하나 되어라. 내 앞에 두 개는 없느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니라. 내가 하나이듯 너희도 하나인 것을 절대 잊지말고 모두 조화를 이룰때 가장 아름다운 예수가 사는 예술의 빛을 발하는 예술단이 되리니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되어지도록 회복하여라. 지도자들은 기도로 더욱 모든 것을 예비시키고 회개로 준비하고 나 예수를 전면에 들어내는 온전한 예술로 재탄생 시키는 예술을 준비하고 너희 선생과 자꾸 의논하고 상의하여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너의 아버지께서 구상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몸부림쳐야겠구나. 이 재림.나 예수의 재림. 그냥 재림이 아니다. 마지막 역사라는 말이니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나의 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완전히 영계를 뒤집을 수 있는 예술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온전하여져라. 온전하여지는 것은 오직 나 예수는 살고 너희는 죽으며 나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절대 명심하고 명심하여라. 너희는 보이지 않아야 하고 하늘 천인들이 펼치는 예술의 무대로 거듭나야 한다. 기대하고 소망한다. 예술단들 사랑한다. 내 마음 알아다오. 매우, 몹시, 많이. 사랑하는 나의 오른 팔, 기쁨이들. 안녕.

• 청년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말씀<주온빛 목사>

2009.8.24.월 새벽 4시04분경에 받은 말씀

황금물결 넘치는 청년부야! 나 예수다. 너희의 영원한 청년 예수니라. 너희들이 내가 편지하니 기쁘니? 나는 매우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쁘구나.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너무나 고맙다. 젊은이들. 나의 청년부,나의 청년부,나의 사랑하는 청년부. 먼저 너희들 수고가 많다. 수고가 참으로 많다. 너희의 젊은 날을 하늘 앞에 바치고 영광 돌리며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는 너무나 대견하다.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구나. 너희 청년부는 말이다. 생선으로 말하자면 가장 맛있는 가운데 토막이다. 세상의 청년들은 술과 향락과 이성과 물질에 빠져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추구하지만 이곳 섬리사 청년들은 깨끗하게 하늘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자들이니 이곳보다 합당한 청년들은 세상에 없구나. 청년부들은 세상에서의 유혹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자들은 모른다. 이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세상사람 다 하는 것 끊어가면서 이 섬리사 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로 다. 다른 자들 다 몰라도 내가 너의 마음 알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 곳곳마다 청년부

의 손이 안간곳이 없다. 배고픈 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늘 앞에 헌물도 바치며 이들의 마음을 표현해 왔다. 몰라주면 안된다. 알아줘라. 청년부들은 늘 더 하고 싶다. 늘 더 몸부림치고 싶어한다. 하늘 앞에 서지 못하는 한맺힌 자들이다. 하고 싶어도 매여있는 곳이 있기에 하늘의 사명만 가지고 이 섭리사 위해 자신의 젊음 바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세상의 일을 하니 지금 재림의 때에 어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걱정의 말들 많이 하는구나.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라는 말이 아니거든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려야 하느니라. 청년부들은 더욱 모든 집회에 꼭꼭 참여하고 피곤할지라도 영원한 그 더러운 나라 가는 것만은 몸부림치며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시며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가기 소망하시는 데 그곳에 가야되지 않겠니? 청년부도 온전한 청년부가 있는가 하면 더 몸부림쳐야하는 자들이 있다. 섭리는 풀로 뛰어도 어려운 것, 힘든 것 반드시 많다. 그렇듯 청년부들은 자신의 육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모든 시간에 뒤쳐져 있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투자하고 몸부림쳐야 한다. 육신이 너무 피곤해 새벽 나와 내 아버지, 성령어머니가 좌정하시는 시간을 피하며 사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일을 줄여서라도 나에게 나와야 한다. 나에게 나오지 않는 자 나를 만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난 날 하지 못한 것과 모든 죄악을 날같이 하늘 앞에 고하고 회복하여 온전히 몸부림쳐야 하느니라. 세상속에 있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쌓여 있구나.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또한 결코 회개치 않으면 나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 온전히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한다. 그리할때 내가 더욱 너희 청년부 가운데 물분듯이 은혜를 퍼부어 줄것이다. 은혜받길 원하느냐? 간구하여라. 매달려라. 내 발아래 엎드려 온전히 공손하게 나를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 진정으로, 진실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청년부. 깊이 있는 심정의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고통당했던 모든 마음을 내 앞에 고하며 심정이 살아있는 심정의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 그 큰자들은 성장한 자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다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잘 하듯 너희 또한 그리해야 한다. 이제 성장한 자들이 되어 나의 심정을 맞고 나의 재림을 진정으로 깨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의 재림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인지 멀게만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청년부 중앙은 두루 다니며 이들에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심정받길 원하니 어서 속히 내 앞에 나와 간구하길 원하는 나 예수의 마음을 전하여 다오.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한다. 곳곳을 다니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이들을 지옥같은 그곳에서 건져내주고 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게 깨워줘야 한다. 늘 새롭고 싱그럽게 편안히 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며 모든 자들은 편안히 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며 모든 자들을 만나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청년부 섭리사의 튼튼한 허리라 하였는데 기존의 선배 청년부가 빠지면서 이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나보다.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이들 버릴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 어서 만나 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나를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음이 차디차다 못해 냉랭한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으니 그 한계에 막힌 부분을 속 시원히 뚫어주길 기대한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어서 속히 시행하여라. 아픈 자들 치유해주며 엎어서라도 끌고서라도 나의 아버지나라에 데려갈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죄때문에 가지못하는 일 없도록 너희의 본분에 충성을 다 하여라. 나 예수,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를 갈망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할 수 없겠다 싶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려라. 육적인 것에 빠져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사 각자가 일하고 있는 곳을 나 예수가 거하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 예수를 찬양하고 부르짖는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몸부림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온전한 자가 얼마 없나니 마지막 지금 이때 마지막 기회 주고 계시니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움에 감사 영광 돌리며 나의 사랑하는 심정의 청년부, 어서 속히 깨어나 나 예수 맞을 준비하여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랑의 예수니라. 아픈 곳, 슬픈 곳 나에게 고하여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합당한 것 고하여라. 그리해야 응답하리라.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 절대 포기치 말고 나 예수의 이끄심에 따라 돌아오는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없느니라. 이 섭리사 청년부들! 나 예수가 너무나 사랑해서 편지했다. 안녕.